

# 반도체

## 비중확대 (유지)

이 승 우

02 6915 5771  
swleesw@ibks.com

R.A 이 양 중

02 6915 5666  
yj.lee@ibks.com

## 메모리 가격 완만한 하락세 or 안정세 예상

- DRAM 가격 2Gb 1.2%, 4Gb 0.3% 소폭 하락, NAND는 고가제품 안정세 속 평균가격은 소폭 하락
- 2분기 글로벌 DRAM 매출 전분기 대비 24% 증가. SK하이닉스 2분기 DRAM 점유율 30%로 증가
- 2분기에 증가한 재고와 3분기 부진한 수요가 우려스럽지만, 공급증가 역시 제한적이어서, 하반기 메모리 가격은 보합내지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됨
- 반도체 경우 견고한 3분기 예상 실적대비 밸류에이션 하락폭 지나친 수준, 비중확대 의견 유지

### What's New:

지난 주 2Gb DRAM 가격은 1.49달러에서 1.63달러로 9% 넘게 반등했었으나, 지난주에는 다시 1.2% 하락하며 1.61달러로 마감되었다. 4Gb 제품도 0.3% 소폭 하락했다. NAND의 경우 평균가격은 전주 대비 3.7% 하락했지만, 국내 업체들이 주로 공급하는 고가제품의 경우 7.5달러(MLC 64Gb)로 계속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점이 오히려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 Analysis:

2분기 세트 업체들의 적극적인 DRAM 구매로 현재 세트업체들의 DRAM 재고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3분기에도 PC 판매의 계속된 부진으로 수요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도 8월 마이크론의 연간 결산에 따른 밀어내기 효과까지 겹쳐 DRAM과 NAND 가격은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강세보다는 약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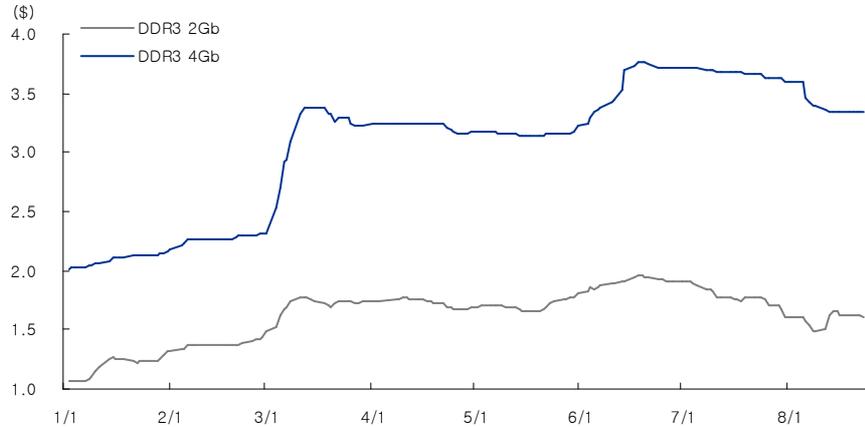
그러나, DRAM 업체들이 계속해서 넷다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스페셜티 제품 생산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공급증가율도 안정적으로 조절될 것으로 보이고, 9월부터는 마이크론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다는 면에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하반기 DRAM 가격은 보합 내지는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 So What:

메모리 가격은 7월 이후 예상보다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나, DRAM의 경우 2Gb 기준으로 1.5달러 선에서 급 반등 후 안정화되는 흐름이며, NAND도 주로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는 고가제품의 경우는 저가제품과 달리 전혀 하락하지 않고 있어, 3분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QE축소 우려와 매크로 지표에 따라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예상 실적과 현재 밸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

DDR3 2Gb 가격은  
바닥권에서 급반등 후  
안정세, 4Gb 제품은  
급락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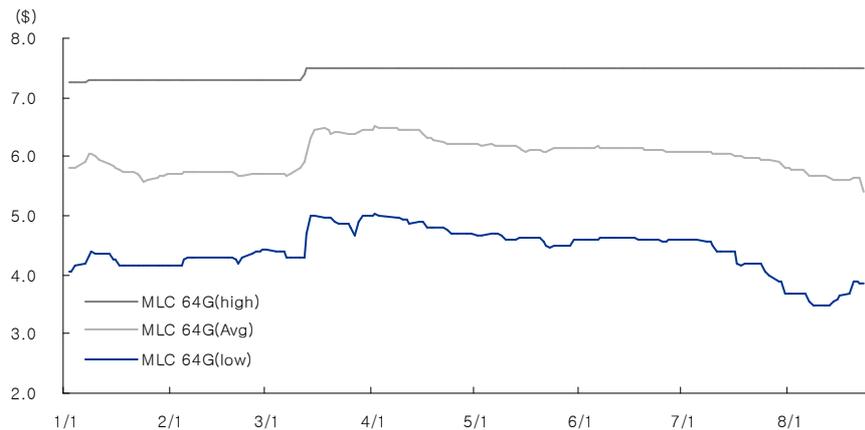
그림 1. DRAM 스팟가격 추이 (DDR3 2Gb, 4Gb)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NAND 고가 제품가격은  
변함없이 안정적 수주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NAND MLC 64Gb 가격추이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 2분기 DRAM 산업: SK하이닉스 약진 뚜렷

2분기 글로벌 DRAM 매출은 85.3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2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32.8%로 1위를 계속 지켰으며, SK하이닉스가 30%로 2위, 엘피다와 마이크론이 각각 15.2%와 12.9%로 3, 4위를 기록했다.

대부분 업체들이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전분기 대비 매출이 40.6%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초로 3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3위 엘피다와 4위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더 높은 점유율이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통합 마이크론보다 점유율이 소폭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SK하이닉스의 DRAM 점유율 약진은 가격이 많이 오른 PC DRAM 출하량을 탄력적으로 늘린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쟁사들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x나노대에서 PC용

제품 생산을 늘렸고, 이로 인해 전체 제품에서 PC DRAM의 수익성이 가장 좋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분기 PC DRAM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SK하이닉스는 3분기 들어서는 다시 모바일과 서버제품 비중을 늘리면서 PC제품 가격 하락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2분기 DRAM 사업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반대로 PC DRAM 물량이 경쟁사들 대비 훨씬 낮기 때문이다.

통합 마이크론의 단순 DRAM 생산능력 합계는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를 넘어 세계 1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이크론 캠프 생산설비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월 6만장 규모의 싱가포르 테크팹이 향후 DRAM에서 NAND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합병 초반 마이크론은 히로시마(엘피다)와 렉스칩, 이노테라와 버지니아, 르하이 등지의 DRAM 생산 설비에 대한 전략적인 재배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DRAM 2위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2분기 DRAM 업체별 매출액 집계

순위	DRAM 업체	매출액			점유율	
		1Q13	2Q13	증가율	1Q13	2Q13
1	삼성전자	2,594	2,794	7.7%	37.8%	32.8%
2	SK하이닉스	1,819	2,558	40.6%	26.5%	30.0%
3	엘피다	946	1,300	37.4%	13.8%	15.2%
4	마이크론	891	1,098	23.2%	13.0%	12.9%
5	난야	264	419	58.7%	3.8%	4.9%
6	원본드	118	136	15.3%	1.7%	1.6%
	기타	238	226	-5.0%	3.5%	2.6%
	합계	6,870	8,531	24.2%	100.0%	100.0%

자료: DRAM Exchange, IBK투자증권

## 지난주 금요일 도시바 Fab5 Phase2 착공 보도

한편, 일부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도시바가 Fab5(플래시 포워드)의 2단계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시바는 샌디스크와 JV형태로 Fab3(플래시 파트너스, Fab4(플래시 얼라이언스), Fab5(플래시 포워드) 등 세계의 12인치 NAND 플래시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각 라인들의 디자인 캐파는 각각 월 150K, 200K, 200K(1단계 100K, 2단계 100K)이며, 실제 아웃풋은 2분기 현재 월 350K이며, 내년 말에는 월 430~450K까지 대략 20~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램프업에 나서는 Fab5 2단계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 신규 생산 설비에서는 1x 나노급 양산과 3D NAND 생산이 적용 되어질 전망이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도시바의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는 4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현지 보도도 있었으나, 그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확인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2단계 공장의 가동시기도 내년 하반기 이후이기 때문에, 당장 NAND 수급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